

buddhanews.com

여러분의 생활자체를 그대로 참선으로 알고 가세요

25면에서 계속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짚어도 짚어도,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사유를 말을 해도, 그걸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개 모습을 쓰고 나왔으니 개 대접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개로만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천차만 별의 모습들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왜 옛날에 무당들이 "국내 밭내도 못 밭는다, 너!" 이러죠? 그렇게, 하여튼 지옥에 갈 일을 했다면 지옥에 가 벌이지겠죠. 오간지옥이라는 게 뭡니? 땅속에서 꿈틀대면서 국내 밭내도 못 밭는 것이 그 개 아귀 지옥도 되지만 오간지옥에서 허떡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옛날 얘기나 하면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그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일을 모르고 어저께 일을 모르니까 그렇지, 만약에 안다면 살인입니다. 사람이 독사같이 살았다면 독사로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많지만 하나로 규정을 지어서 방편으로 해 봅시다. 우리 모습이 그렇게 개 모습으로 나오면 개 대접밖에 못 받을 것이고 뱀으로 나오면 뱀 대접밖에 못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생으로 태어나면 축생 대접밖에 못 받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지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숨이 불어 가지고 그 모습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닭이라면 닭의 짓을 하던 숨이 있어서, 뱀이라면 뱀의 짓을 하던 숨이 있어서, 그 숨이 불어 가지고 그 모습의 무명을 벗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백 세를... '오백이다' 하는 것은 아주 세세생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무명을 벗고 딱딱 털고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간 환생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인간 환생이 왜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으니 그저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해서 구덩이에서 나오게 해야지 한생각을 잘못해서 구덩이에 들어가게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굶어먹고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이죠. 빠뜨리고 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나 하고 울고불고 아무런 해 봤던들, 버스 지나간 뒤에 아무리 그레 봤던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뚱이 하나를 우주라고 해도 되고 국가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또 지원의 스님네들한테 모르는 건 물어서 항상 잘 관해서 체험을 하도록 하세요. 49년 동안 부처님께서 설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 그 뜻을 말로는 다 감사하다고 못합니다. 그러니 부처님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일체 중생들, 풀 한 포기도 곤충 하나도 스승 아닌 게 없다는 것을 아

셔야죠.

곤충이라고 깔보지 마세요. 자기 뱃속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 것입니다. 자기 육체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온 곳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혜를 좀 더 넓혀서 돌로 보지 않고 전체를 본다면 돌 아닌 돌리가 착 나올 것이다. 요 한 그릇 안에서만 본다면 너 나가 아주 뚜렷하게 갈라져 있으니까요, 천차만 별로.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지혜로운 마음으로 관하는 법을 세밀하게 잘 아셔서 내가 급할 때 실천에 옮겨 보세요. 생활하시면서 아프든지 애고가 오든지 어떠한 것이 오든지 그거를 고(苦)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재료를 알고 관하세요. 예를 들어서 '네가 고를 안다면 고를 없앨 수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로 알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치는 대로 '아, 이거는 내가 마음의 관법을 공부하라고, 마음공부를 하라고 이 재료가 나한테 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재료를 다 거기다가, 옹공로에다 넣고 재생태

불법에 드는 인연이 다르지만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 동안 무척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1년 전부터 불법을 만나게 돼서 제게 딱친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품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다 스님의 밝은 가르침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보니 사고를 당하거나 또 오랜 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생각을 어떻게 지니고 다스려야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지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스님 부처님이 나누시는 법을 여러분의 육안으로는 못 보실 겁니다. 불이 들어오고 꺼지는 것만 보지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못 보듯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예를 들어서 천지와, 즉 말하자면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직결돼 있는 그 마음, 가설이 돼 있는 직결처에다가, 즉 자기 안테나에다가 모든 것을 놓았을 때, 아픈 것도 '너밖에 낫게 할 수 없어.' 하고 거기에서 낫을 때는 말입니다. 부처님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이 순간 한 찰나에 약사로 나타나서, 즉 말하자면 낫게 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자기 마음의 그릇이 돼 있으면서 부처님의 마음이 응신으로 나타나서, 즉 그냥 약사로 화해서 나타난다 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같이 하는 거죠. 불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낫게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뜻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은 심성과학이라고 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지금 그 심오한 뜻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할 때에 '너만이 네 몸을 건강하게 이끌고 갈 수 있잖아!' 할 때에 바로 부처님의, 일체제불의 마음은 한 찰나에 드십니다. 이거는 그릇 없는 그릇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야만, 즉 깨진 사람이라야만 찰나찰나 왕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코스로드가 거기에다가 그냥 관하신다면 그대로 약사로 화해서서 거기 응해 주십니다.

질문자(남)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나가는 것을 한번 지켜보고 이렇게 한다면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을 '이게 뭘고?' 하고 무의미하게 두리번두리번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박수) 질문하실 분 있으면 두서너 분만 받죠.

질문자(남) 불법 공부에는 눈 밝은 선지식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야 올바른 불법에 들 수 있다고 하던데, 오늘 이와 같이 스님과 같은 선지식을 모시고 좋은 법문도 듣고 제가 질문까지 하게 되었으니 저로서는 한없이 기쁩니다. 사랑마다

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부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하고 둘이 아닌 까닭에 직결되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만 명이 있다면 만 명의 마음이 협동해서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해 드리는 겁니다.

질문자(여) 다음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주인공 자리에서 무조건 믿고 맡기라고 하였고 잘되고 못되는 것을 다 놓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처음 생각은 그렇게 나가다가 차츰 좋은 쪽이나 잘되는 쪽으로 놓고 맡기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가야 하는지요?

스님 오는 것도 받고 가는 것도 법입니다. 그래서 양면을 다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심역을 잃어버리느냐 마느냐 하는 아주 급한 일에 처해서 바빠 있는데 몸을 사람한테 걸려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지 못하게 된 것도 법입니다. 가지 못하게 돼서 생명을 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것도

여기 오기 전까지 저는 인도 그리고 유럽,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오랫동안 구도의 길을 헤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마음 주인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스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에 제 깊은 마음속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깊은 감동, 깊은 기쁨,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2년간 한마음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한국처럼 『한마음요전』이랄지 이런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유럽에 지원도 없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인공 공부를 통하여서 저는 첫째, 내면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고 했을 때 많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마음 깊이가 다시 한 번 스님께 감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대중 박수) 주인공 공부를 하니까 마음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 자비의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내 의식의 깊은 곳에 사랑이 있지 않고 뭔가 어두움이 가끔 느껴집니다. 제 생각에 제 의식의 어두움 때문에 제가 아팠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내면의 어두움을 밝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그거는 주인공에 관할 때, 내 마음 깊이가 관할 때 그렇게 답답하고 어두운 마음은 구정물과 같은 거니까 '너한테서 구정물이 나오는 거니까 너만이 맑은 물이 나오게 할 수 있다.' 하고 거기가 맑게 놓으면 그대로 맑은 물을 쓸 수가 있어요. (대중 박수)

질문자(여)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일체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답답한 것 한 가지뿐이 아니라 일체 만법을 다, 우리네 생활 속에서 답답하거나 애고가 딱치고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어떠한 것이 딱쳐도 조금도 겁 안나게 거기가 맑게 놓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다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너만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고선 거기가 낫을 때에 바로 그것이 맑은 물로, 구정물이 맑은 물로 대체되는 이치죠.

질문자(여) 예. 공부를 다시 더 하겠습니다. 한 마음선원이 유럽 독일에 곧 세워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중 박수)

스님 희망한다면 될 테지, 뭐, 설 건들만 많이 생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이 있으면 주인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절도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면이 다 맞아야 생기겠지요.

질문자(여) 스님,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위 법문은 1993년 7월 24일 마산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관하는 법을
세밀하게 잘 아셔서
내가 급할 때
실천에 옮겨 보세요!

진짜로 믿고
진짜로 맡길 줄 알아야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라야만이 되겠죠!

법, 뒷걸음질 쳐서 후퇴하는 것도 법입니다. 전진하는 것만 법이 아니고 후퇴하는 것도 법입니다. 만약에 후퇴를 안 했다가는 전체가 몰살을 당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후퇴하는 것도 법, 전진하는 것도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뜻은 항상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라 얘깁니다. 항상 건지고, 항상 자비고, 항상 살리고 그러는 거라 이겁니다. (대중 박수)

질문자(여) 스님, 고맙습니다.

질문자(독일인 여) 안녕하세요, 스님!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해진 스님 통역) 2년 전 독일에서 한국에 스님을 뵈러 처음 왔었습니다.

경축

세계최대 250m 달마도 108m선화도

석주미술관 회향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1리 30-1번지 선화예술원 (TEL 041-858-2666)
석주 합장

풍기 정품

풍기 정품 홍삼액 골드, 액기스, 레드파워(산삼배양근추출액 50mlx16병)판매



100ml×60포 (한달분) 액기스(500ml)

- 판매처 054)634-3429
- 휴대폰 011-9373-3778
- 입금계좌 : 우체국 703884-02-048103 (예금주: 박영애)

삼을 직접재배, 가공하여 만들어진 양질의 홍삼만을 선별, 연구개발하여 스님, 불자님께는 특별혜택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드립니다

유효사포닌(32종)의 성분들이 살아있는 최상의 건강식품입니다

전자식 2중문 3중정보 특헌 불전함



움직이거나 텅만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대

-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